

우리나라 가계 지갑에 평균 11만6000원

우리나라 가계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평균 11만6000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보유 현금은 최대 10만원 가량 격차가 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중 99.7%가 거래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11만6000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이 지난해 10월26~11월20일까지 전국 1인 이상 가구주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설문 당시 응답자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규모다

소득이 많을 수록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많았다. 고소득(월평균 500만원 이상) 가구의 거래용 현금 규모는 평균 19만8000원으로 저소득(월평균 190만원 이하) 가구의 보유액 9만원보다 10만3000원 더 많았다.

종사자 자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1만6000원)와 단독 자영업자(15만

비상시 대비 예비용 현금 규모는 69만 3000원

5000원)의 경우 보유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어 상용직(10만4000원), 무급(9만5000원), 일시·일용직(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27%는 소지하고 있는 현금 외에 비상시를 대비해 집이나 사무실 등에 예비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용 현금 규모는 평균 69만 3000원에 달했다.

특히 예비용 현금의 경우 고소득과 저소득 가구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저소득 가구는 평균 36만5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고소득 가구는 192만2000원을 갖고 있어 약 5.2배 차이가 났다.

거래용과 예비용을 합한 전체 보유 현금 규모는 평균 3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주로 50대(40만원)와 60대(39만원)의 고령층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유 현금 중에서는 5만원권이 가장 많았다. 거래용 현금 중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6.9%로 가장 많았고, 예비용 현금에서도 전체의 80.7%가 5만원권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5만원권의 경우 거래용(68.2%)에 비해 예비용(84.1%)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294만원)에서 저축이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지출액(206만원) 중 현금사용 비중은 80만 8000원(38.8%)로 가장 많았다. 다만 현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간 거래를 포함한 가구의 모든 지출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어 신용·체크카드 77만1000원(37.4%), 계좌이체 43만6000원(21.2%)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출액의 절반 가량인 52.8%(42만 3000원)은 주로 사적이전(22만6000원), 경조금(12만6000원), 종교 기부금 및 친목회비(7만원) 등 개인간 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소득에서 현금으로 취득하는 비중은 24.8%로 계좌이체(72.8%)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현금 취득은 종사자별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평균 53.8%로 가장 높았고 상용근로자의 경우 11.2%로 가장 낮았다.

한편 기업의 경우 종사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1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7%가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3.2%에 불과했다.

가계와 기업 모두 향후 경제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는 비중이 각각 38.7%와 19.3%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진수 기자

IBM, "AI, 10년 안에 인간의 삶 근본적으로 바꿔"

IBM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책임자(CTO·사핀)는 "인공지능(AI) 기술이 5~10년 안에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 CTO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16일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와 금융 분야에서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고 있다"며 "인공지능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 CTO는 "인공지능의 역할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늘리고 인지를 강화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고 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프로그래머와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국에서 승리한 구글 알파고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하이 CTO는 왓슨과 알파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사파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처럼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고 했다.

단 IBM은 개별 기술을 어떻게 결합시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구글 딥마인드는 학문적인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IBM은 지난 1997년 인간 체스 마스터를 꺾은 '딥블루'와 지난 2011년 미국 퀴즈쇼에서 우승한 '왓슨'을 개발한 인공지능 분야 선두기업이다.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 왓슨을 매개로 의료와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진수 기자

美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 대미 수출 역량 강화해야"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도 미국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경기상향방 요인 점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소비, 고용, 부동산 등 가계 부문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 비중이 미국 총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 경기 회복세 지속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양적완화가 종료된 2014년 4분기 4.3%(전기비 연율) 이후 하향세에 있지만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 소득 여건 개선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상환 비율(DSR)은 2015년 3분기 10.0%로 금융위기 이전 평균인 12.5%(2008년 1분기~2007년 3분기) 보다 낮은 사상 최저치 수준이다.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5년 4분기 다소 하락했지만 2014년의 2% 중후반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밖에 고용의 안정 확대와 질적 개선, 부동산 시장의 판매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 등도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경제는 미약한 세계 경기 회복세와 급감한 세계 교역의 여파로 수출이 침체되면서 기업 부문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 가계 부문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경기는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회복세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 수출 경기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발 변수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연준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완화를 이유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에는 추가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에 환변동보합 제도를 알리고 장기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기법 컨설팅지원을 통해 환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진수기자



레노버 X1 패밀리

한국레노버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씽크패드 X1 카본, 요가, 태블릿 등 프리미엄 PC 제품군 X1 패밀리를 선보이고 있다.

다음달부터 전기차 돈내고 충전해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기차를 충전할 때 요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충전시설 337기의 요금 단말기 설치가 끝나는 오는 4월부터 현재 무료인 공공 급속충전기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요금은 킬로와트시(kW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당 313.1원이 유력하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45% 수준이다.

분당에서 강남까지 매일 40km 가량을 전 기차로 달리면 월 5만9000원 정도를 충전요금으로 내야 한다.

환경부는 5년간 운행 때 차량 구입비, 연료비와 세금을 합한 비용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0만원 이상 적게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에 걸쳐 총 640여 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진수기자

지난해 4분기 투자자문사 수익 17% 줄어

투자자문사의 수익이 60억원 감소했다.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절반이 대비 5곳 줄었지만, 수익성과 성과 보수 등이 줄어들면서 실적 이 내내진 자문사는 76곳에 달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전업 투자자문사의 수익액은 지난 분기보다 16.7% 줄어든 300억원에 그쳤다.

수수료 수익은 535억원으로 같은 기간 7.8% 줄었고, 특히 성과 보수와 같은 기타 수수료 수익이 63억원 감소했다. 반면 증권투자 이익은 25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6.1% 증가했다.

전업 자문사 가운데 수익이 줄어든 회사는 76곳으로 전체 자문사 170곳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96곳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가 전문 사모 집행투자로 전환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도입 등 시장 환경의 변화가 이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문사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계약고는 모두 26조 7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7.1% 감소했다.

자문사 4곳이 전문사모집행투자자로 전환하면서 일임과 자문 계약고가 각각 1조원 줄어든 18조9000억원, 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